



07-47 (통권 174호)
2007.11.23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중국 경제의 물가불안 우려 점증
- 3/4분기 교역조건 악화

경영 노트

- 중국 '노동계약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사회 트렌드

- 웰빙을 넘어 웰싱킹 시대
- 네오 블루칼라(Neo Blue collar)

저널 브리프

- 고유가, 석탄가격 고평 행진

洗心錄

- 시장경제를 만든 어부의 칼

□ 중국 경제의 물가불안 우려 점증

- 10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6.5%에 달하는 등 최근 들어 중국 경제의 물가불안 우려가 점증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는 올해 초반 3% 이내의 안정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4분기 이후로는 돼지고기 공급부족에 따른 식품가격의 큰 폭 상승에 기인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최근의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 기업의 생산원가 상승과 무역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유동성 과잉 등은 향후 중국경제의 물가불안 우려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임

- 최근의 물가상승이 식품가격의 일시적 상승에 기인한 측면이 커 전면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과잉 유동성 등 물가불안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 3/4분기 교역조건 악화

- 3/4분기 중 순상품교역조건지수($(\text{수출단가지수} \div \text{수입단가지수}) \times 100$)는 전기 대비 3.2% 하락한 69.0을 기록하여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냄
 - 이는 석유제품, 화공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단가가 전기대비 0.9%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단가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4.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에 기인하고 있음
 - 수입단가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유, 철강재 등의 상승에 힘입어 원자재(4.7%)가 크게 올랐으며, 소비재(3.7%)와 자본재(3.4%)도 곡물과 전자·전자기기 품목의 수입단가 상승에 기인하여 3% 이상 상승하였음

- 한편 총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지수($(\text{순상품교역조건지수} \times \text{수출물량지수}) \div 100$)는 수출물량(전년동기대비 9.6%)이 늘어난 데 기인하여 전년동기대비 6.2% 상승하였음

□ 중국 ‘노동계약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 (개요) 중국 노동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 ‘노동계약법’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중국 진출 기업들의 노무관리에 비상이 걸림
 - ‘노동계약법’의 실시에 따른 인력관리의 어려움 증가와 고용리스크 및 노무비용의 증가 등 기업 부담이 증가될 전망이다
- (주요 내용) ‘노동계약법’의 시행은 기존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용자 권익 우선주의에서 앞으로는 피고용자 권익 우선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함
 - (장기고용 보장) 동법 시행 이전부터 해당 기업에 연속적으로 10년 이상 근속하거나 2008년부터 2회 연속 고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 시까지 고용을 보장함
 - (경제적 보상 확대) 동법 시행 이후부터는 피고용자 퇴직 시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의료 및 고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노동자 지위 강화) 노동자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중대사항의 결정 시에는 공회(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노동자는 불합리한 규칙 제도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함

〈‘노동계약법’ 시행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사례〉

회사	업종	국적	내용
1. 화웨이(华为)	네트워크 통신	중국	직원 62,000명 중 근속기간 8~10년인 7,000명에 대해 일시 해고 및 재계약
2. 월마트(沃尔玛)	소매유통	미국	44,000명 중 110명 감원 실시, 연말까지 전체 인원의 15% 감축 계획
3. LG(China)	전자	한국	근속기간 5~9년인 직원을 대상으로 전체 직원의 20% 이내에서 감원 계획
4. 란통(联通)	통신	중국	최대 전체 인원의 30%까지 감원 계획

자료: <http://business.sohu.com>

- (시사점) 중국의 법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체계의 정비와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인건비 효율화가 필요함
 - 민주절차에 따라 규칙제도를 제정하고 매년 퇴직금(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노동계약 장기화에 대비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규제하는 자원낭비, 환경오염 관련 업종을 기술력 위주의 업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웰빙을 넘어 웰싱킹 시대

- 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싱킹’(Well-Thinking)이라는 유행어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음
 - ‘웰빙’(Well-being)과 생각 또는 사고를 뜻하는 ‘싱킹’(Thinking)을 결합한 합성어인 웰 싱킹은 두뇌활동을 통해 참살이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 말
- 이같은 트렌드에 힘입어 식품업체들도 두뇌활동에 좋은 기능성 신제품, 이른바 ‘브레인 푸드’를 속속 개발하고 있음
 - 가령 제과업계에서는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초콜릿 신제품인 ‘집중력’(해태제과), 음료업계에서도 ‘Brain Q 148’(한국야쿠르트), ‘스팟’(CJ) 등 ‘신개념 총명탕’이라고 할만한 제품을 내놓고 있음
 - 유업계에서도 ‘두뇌 이야기’(매일유업), ‘집중력을 생각한 우유’(서울우유), ‘수험생을 위한 마더스밀크’ 등 뇌 활동 증진을 위한 제품을 출시

□ 네오 블루칼라(Neo Blue collar)

- 세계 조선산업의 메카인 울산과 거제가 ‘블루칼라 특구’로 떠오르고 있음
 - 두 도시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블루칼라)들이 다른 도시의 근로자와 비교할 수 없는 업그레이드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임
 - 이곳 근로자들은 ‘평생직장’을 보장받는 데다 고임금과 선진국 수준의 복지 혜택을 향유하고 있음
- 블루칼라지만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아니라, 연봉 3~4만 달러의 고소득을 올리며 대도시 화이트칼라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계층을 ‘네오 블루칼라’라고 부름
 - 이들은 고소득, 넉넉한 여가, 탄탄한 복지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신흥 소비계층으로 떠오르고 있음
 - 네오 블루칼라는 하루하루 생활에 쫓기는 대도시 화이트칼라들과는 달리 여유있게 은퇴 이후를 준비하며 ‘부유한 시니어’(wealthy senior)의 삶도 꿈꾸고 있음

□ **고유가, 석탄가격 고공 행진***

- (석탄가격 급등) 최근 유가가 100달러에 육박하면서 대체재인 석탄으로 수요가 몰려 석탄가격이 연초보다 60% 정도 급등(뉴캐슬항 기준)하고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내의 석탄가격도 연초 대비 32% 상승
- (중국, 인도 내 석탄 에너지 부상) 고유가에 대한 대책으로 석탄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수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등의 대체 에너지 공급이 불확실하기 때문임
 - 현재 석탄 주 소비국인 비OECD 국가(중국, 인도 포함)의 고유가에 대한 대안 확충(원자력, 수력, 신재생 에너지 등)이 미흡하여 석탄 의존적 에너지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수력 에너지 설비 확장에는 한계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의사가 불확실한 상황
 - 인도는 원자력 발전계획 추진 단계에서 자국내의 정치적 분열로 원자력 발전계획이 무산위기를 맞고 있음
- (석탄 공급의 부족) 자국 에너지 보호를 위해 석탄 공급을 줄이는 중국, 항만 인프라 부족에 의한 호주 등에 의해 석탄 공급이 제한되고 있음
 - 중국 : 석탄 생산 인프라 확충 미흡, 에너지 장기 비축 전략에 따른 석탄 공급 축소 등에 의해 중국의 석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
 - 호주 : 석탄 주요 수출국가인 호주는 석탄 수출시 뉴캐슬항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구조이며 추가적인 항만 인프라 투자가 어려워 다량의 석탄 공급 흐름에 장애가 발생함
- (시사점) 고유가에 이어 석탄 가격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어 기업은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석탄 이외의 대체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여 대체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에너지 산업 수출을 증대시켜야 할 것임

* 이 글은 『매경ECONOMY』(2007.11.28)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시장경제를 만든 어부의 칼

전 세계를 지탱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인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 은행, 신용대출, 어음, 상품거래소는 과연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까? 그 주인공은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도 아니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던 영국도 아니다. 그것은 풍차와 튜립, 그리고 나무신발로 기억되는 동화속의 나라인 네덜란드이다. 사실 네덜란드는 가난하고 척박한 나라였다. 네덜란드는 북해에 근접해 있는 반면, 주변 국가의 지형에 비해 움푹 파인 '저지대' 지형 때문에 홍수가 빈번했고, 따라서 생계를 위한 농업도 어려웠다. 그래서 농작을 위한 수리시설로 만들어진 것이 풍차였고, 대부분 습지에서 생활하기 위해 나무신발을 신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가난했던 네덜란드가 오늘날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시작은 1358년 네덜란드의 평범한 어부였던 빌렘 벤크소어(Willem Beukelszoon)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벤크소어는 북해에서 잡은 청어 내장을 단칼에 배어내 제거할 수 있는 생선처리용 칼을 만들고, 소금에 절이는 청어 통절임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 이 방법은 부패하기 쉬운 청어 저장을 1년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난한 네덜란드가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국으로서의 위치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식량이 부족한 유럽인들에게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청어는 훌륭한 식량이 되었고, 청어절임의 독보적 위치를 확보한 네덜란드는 각 국가 운송권과 유럽 최고의 선박기술을 보유하게 된다. 강력한 무역국으로 부상한 네덜란드인들은 유럽-아시아 무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가지만, 자국 회사들 간에 과다경쟁이 벌어지고, 영국 등 타 국가와의 무역경쟁에서도 밀리기 시작하자, 정부지원 하에 각 상인들의 자본을 모은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결국, 생선처리를 위해 한 어부가 고안해낸 평범한 칼이 인류역사상 수많은 전쟁에서 장군들과 왕들이 사용한 보검보다도 국가를 번영시키고, 세계경제의 혁명을 불러온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제시간에 할 일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할 일을 한다.**

하이너 리프너 : 스위스의 경영자

